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내용 공개
- [3차] 무용 분야 중진 그룹 -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ㅇ 일　시 : 2019.1.30.(수) 16:00~18:00

ㅇ 장　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연습실2

ㅇ 참석자 : 총 12인(예술인 패널 4인, 예술위 8인)

구분	성 명	현직
무용 분야 중진 예술인 패널 4인 (가나다순)	김성한	세컨드네이처 댄스컴퍼니 대표
	김윤수	김윤수 무용단 대표
	남수정	남수정 무용단 대표
	장은정	장은정 무용단 대표
내부 8인	조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분야 위원, 안신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자문위원장, 장계환 극장운영부 부장, 진용남 무대예술부 부장 외 극장운영부 직원 4명	

□ 주요 논의 사항

ㅇ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ㅇ 극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 현장 논의 내용

※ 발언자 표기는 편의상 '패널(예술인 패널)'과 '진행자&위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구분합니다.

진행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일반현황 소개. 2018-19년도 사업예산 및 기획사업, 대관 현황, 극장별 공연 실적 등 공유 후 논의 주제 설명

[안건1]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진행자: 블랙리스트 사태를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극장 운영 방향성에 대해 다시 심도 있게 고민 중이다. 그간 예술위 내부적으로도 아르코혁신TF를 꾸려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했고, 더불어 극장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재접근 하려 한다. 운영 방향이나 조직체계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자리에서 그동안 저희 극장에 대해 느끼셨던 모든 걸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패널: 여기 오기 전 주변의 많은 선후배들 의견을 미리 구하고 참석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극장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과 한국공연예술센터 때와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위와 통합된 후 예술가들은 극장에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졌다.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느린 편인데, 예술위 행정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나 정책들에 대해 변화해가는 속도를 우리는 쫓아가기 힘들다.
아르코예술극장은 다른 극장들이 따라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극장이다. 대극장의 대관방향이 축제로 고정되면 앞으로 축제만 점점 더 커지고 현장은 죽어갈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아르코예술극장이 먼저 좋은 방향을 찾아야 지방에 있는 많은 극장들도 이를 따라갈 것이다.

패널: 예술위 다른 부서들로 순환근무가 이뤄진다 해도 극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패널: 작년엔 블랙리스트 때문에 모두가 시끄럽긴 했지만, 아르코예술극장에서 'BEST&FIRST'라는 걸 했을 때 의아했다.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 주변 선후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주위에서 '이게 뭐냐'는 물음들을 많이 했다. 무용계에서는 여전히 지원금에 민감한 분위기인데 아르코예술극장에서의 이 기획공연은 뭐고 누가 어떻게 선정된 건지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예술감독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현장과 소통이 안되진 않았을 거다. 예전에는 대화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가며 진행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대화도

안되는 분위기다. 굉장히 심각하다.

진행자: BEST&FIRST에 관한 저희의 기획의도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정통정극 및 무용 중심 극장이라는 극장 초심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아르코예술극장은 1981년도에 개관했고 2021년이 되면 40년이 된다. 초창기 문예회관이라는 이름의 시작을 거쳐 오늘날 예술극장에 이르기까지 이 극장의 용도는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블랙리스트 사태에 휩쓸리기도 하고,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기관 통합 과정에서의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혼란 등으로 요 몇 년간은 극장의 중심이 흔들렸다. 외적으로는 공연시장의 양적 확대, 관객 기대 수준의 향상,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서울 지역 공연시설의 대폭적 증가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었다. 극장이 단순히 존재 자체만으로 희귀효과를 보던 시절은 지났고, 이와 관련해 극장 내부에서는 이런 내외부 환경변화에 맞추어 극장의 방향성에 대해 직원들과의 논의가 있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대관 중심의 극장 운영 방향은 유지하되, 극장 자체 제작이나 기획을 통해 공연예술에 대한 흐름이나 사회 현실에 대한 시선을 담아낼 수 있는 극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직원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밑바탕 속에 기획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과 함께 BEST&FIRST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수렴하지만, 앞으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연극과 무용의 정통성을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을 다시 찾아가려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그 방향성을 더욱 잘 다져나가기 위해 지금 이런 자리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패널: 많은 분들이 그렇듯 스무 살 이곳에서 춤을 시작했고 아르코예술극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지난 몇 년 간 일련의 사태를 겪어오면서 이제는 모든 걸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예술감독이 영입되는 게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예술위나 극장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변화의 의지가 있는 건지가 포인트다. 예술위 산하라서 그에 따라야 할 일, 또 극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다 있겠지만, 무슨 일이든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마음을 전제로 두면 좋겠다.

아르코예술극장이 축제 위주로 가게끔 설정된 것, BEST&FIRST라는 기획공연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건지, 정작 아르코예술극장을 항상 애정 어리게 바라보고 있는 예술가들은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꼈다. 기획공연을 하는 건 반갑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가 아쉬웠던

거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많은 무용가들이 아르코예술극장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필드에 있는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 영화의 스크린쿼터제처럼 제한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한다.

패널: 한국공연예술센터 시절 있었던 예술감독제도 장단점이 많았지만, 필드에서 여러 가지 겪다보면 견제시스템과 크로스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해진다. 누구도 모르게 이 판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오해와 의심들이 현장에는 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들을 늘 구하고 이것이 정말 수용되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진행자: 현재 아르코예술극장에 들어오는 축제는 15개 내외 정도 된다. 과거에는 많지 않았는데 조금씩 계속 늘어났다. 심의할 때의 부담감이 엄청나다. 축제 위주의 대관 설정을 하지 않았던 과거의 경우에도 사실은 축제 위주의 대관이었다. 축제에 밀려 일반단체들이 많이 떨어졌고, 선정됐지만 축제 기간에 밀려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그러다보면 또 포기하는 단체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일반단체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심하다, 축제에 대해 자리매김을 우선 명확히 해줘야 일반단체들 또한 나머지 일정들 안에서 준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더불어 축제의 퀄리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 또한 직시하고 모니터링제를 강화할 것이다. 심의자료도 면밀히 평가하고 기획성과 작품성, 무대와 객석에서의 진행 능력 등도 매년 모니터링 하여 적극 반영할 것이다. 앞으로는 축제라는 타이틀 만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조금씩 일반단체를 위한 극장의 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패널: 요즘엔 축제라는 용어도 퇴색된 것 같다. 행사 참여자들 간의 판이 되는 경우도 많다. 객석은 그들만의 축제를 빛내주기 위해 동원된 지인 관객들로 가득하다.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축제를 건드리는 게 자칫 무용계 근간이 흔들릴 만한 사태가 될 수도 있어 걱정된다. 그야말로 계륵이다.

패널: 축제 대관의 경우 누가 심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너무도 크다. 축제만 따로 심의를 좀 더 강화하는 건 어떨까. 국제페스티벌의 경우 2~3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모니터링제를 통해 몇몇 축제를 선정하고 2~3년 지속 대관으로 방향을 설정해주면, 일반단체에서도 나머지 기간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릴 것 같다.

위원: 축제가 오래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도 분명 있다. 어찌됐든 앞으로는 모니터링과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일반단체에게 더

기회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거다. 다만 축제라는 것의 가치도 무시할 순 없으니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

패널: 무용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고민들을 해보는데, 당장 실행되긴 어렵겠지만 미래의 씨앗이 될 만한 생각이 들기도 해 제안해보고 싶은 게 있다. '재구매 시장'에 대한 얘기다. 한국무용을 하는 많은 20~30대 젊은 안무가들은 늘 신작을 요청받는 것에 큰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람으로서 기껏 한국무용을 열심히 익혀놨더니, 이제는 되레 한국식 코드를 거세하고 외국 사람들이 소비할 만한 기호의 작품을 하느라 바쁜 현실이 됐다. 국내에서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성단체들이 시장에 나와 재정자립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된다. 팸플릿에 나온 전국 30여개 무용단체 작품을 봐도, 단체명을 가리고 공연명만 보면 구분이 전혀 안갈 만큼 정기공연으로 승부 보는 사람이 없다. 한국무용가가 한국의 뿌리를 버리고 뒤늦게 외국 코드를 새롭게 학습하려는 이상한 분위기가 너무도 씁쓸하다. 한국무용 하는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대 언어들을 입혀가며 관객들과의 간극을 메꿀만한 춤사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지가 한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못되다보니 다들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현실이 됐다.

예술적인 책무와 공공재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 방향을 검토할 때 아르코예술극장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굳이 한국무용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다. 한국 춤 시장 안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회계원리를 지닌 예술적 상황, 그 밑바탕에 아르코예술극장이 초기의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기여한 바가 있다는 평만 받는다면 정말 최고 아닐까. 아르코예술극장이 그 선두역할을 해주면 많은 지자체 극장들도 따라할 것이고, 그럼 재구매 시장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안정화될 거란 희망이 생긴다. 늘 신작 요청에 지쳐 떠나가는 학생과 젊은 무용가들에게도 '아르코예술극장처럼 명망 있는 곳에서 내 공연을 재구매 해줬어!'란 생각은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현장에 더 충실히 남게 할 힘을 줄 것이다.

패널: 좋은 얘기다. BEST&FIRST를 그런 관점에서 구성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

패널: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지원금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있다. 민간단체가 어서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체를 육성시켜야 한다. 충분히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위치가 되게끔 만들려면, 예산을 나눠 골고루 잘 되게 하는 것보다는 무용이 빨리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집중적인 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

패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는 그 산업의 권력이 관객한테로 넘어가면 좋겠다.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 예술위, 예술감독, 극장장, 평론가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향유하는 관객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야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 관객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계량계측 되어 그것을 근거로 잣대를 들이댈 힘이 생겨야 한다.

진행자: 기획공연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에 관해 극장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운영위원회의 견제도 받고 현장과의 소통 과정도 겪어가며 직원 스스로에게 기획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고민해보고 있다.

패널: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 아까 언급됐던 재구매 시장을 고민해 봐도 좋고, 전년도 공연 중 안무자의 역량을 믿고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재공연을 꾸려보는 것도 좋다. 대신 그 초이스에 대한 역량은 직원과 함께 예술감독이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든 잘 조합할 수 있는 TF가 꼭 필요하다.

패널: 그리고 작품 선정에 있어 관객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의견에 마냥 맞춰갈 수는 없다. 어떤 관객을 선정해 의견을 물을지가 관건이다. 주최 측으로부터 동원된 관객이 아닌 본인 의지로 공연을 많이 본 관객이어야 한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매니아회원제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일반관객, 전문관객, 장기관객 등 경로가 복잡하겠지만, 극장 직원들이 관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경로의 회원들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줘야 한다. 그것을 근거자료로 축제와 공연을 선별하고 방향성을 잡아간다면 모두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 관객개발은 결론적으로 시스템이다. 해외 극장들은 대개 1년치 공연 리스트업을 미리 발표해 관객들의 예매 경쟁을 주도한다. 예술가를 살려주려면 시즌 프로그램을 빨리 발표하고 축제들과 연계해서 관객이 예매를 서두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BEST&FIRST도 지속해나가려면 미리 준비하여 1~2년 앞서 공개를 해야 한다. 1년 뒤, 2년 뒤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정하고 공개하면, 예술가들도 미리 준비할 테고 준비기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퀄리티도 높아질 거다. 충분한 예고 없이 일을 벌이고 뒤늦게 수습하고, 그러다보니 뒷말도 많아지는 게 그동안의 문제였다.

패널: 다른 극장들과 연계하여 예술시장을 이끌어내는 기획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새로운 기획사업을 꾸리는 고비용에 비하면, 그보다 절감된 예산 안에서도 이미 잘 기획된 전국 각지의 예술단체 공연들을 여럿 담아낼 수 있다. 중요한 건 예술가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자립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 전국 각지 극장들과 연계해 언더에서 작업하는 좋은 예술단체들을 발굴하고 그들만의 작품을 가져와 마켓을 꾸려주는 시스템이 지

속적으로 구축된다면 정말 좋겠다. 그럼 예술가들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정책이 바로 공공극장이 해줘야 할 일이고, 아르코예술극장이 먼저 시작한다면 이정표가 되어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진행자: 행정이 현장에서 어느 순간에 예측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다져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탕부터 다시 헤쳐 나가려 한다. 제도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공감대를 만들어갈 거다. 규모나 시설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보다 더 훌륭한 데가 많겠지만 우리는 좀 더 포근하고 인간적인, 예술가들에게 아주 작은 감동 하나 더 줄 수 있는 극장이 되고 싶다.

[안건2]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진행자: 조직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극장 체계가 여러 번 흔들렸던 게 사실이다. 극장장과 예술감독의 겸임, 예술감독제, 운영위원회 체제 등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거쳐보았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이다. 예술위 속에서의 공공극장이라는 위치, 대학로 역사 위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 계신 예술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패널: 예술감독이든 운영위원회든, 정말 이런 좌담회 자리를 통해 의견을 내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인지.

진행자: 그간 예술감독제, 극장장 체제, 지금의 운영위원회 구조까지 여러 길을 걸어봤다. 최근에는 예술감독제로 다시 가보자는 분위기지만, 모든 현상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니 예술위 내부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지금으로선 어떤 방향성도 없다. 예술위에서 곧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지만, 극장은 별도로 방향성을 정해 다시 조직 구성을 할 계획이다.

패널: 예술감독이 영입되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독립적으로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줄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패널: 무용계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아르코예술극장이 무용 전용극장으로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연극계는 이를 반대해왔다. 실권을 가진 1명의 예술감독이 어느 분야 사람이냐에 따라 연극과 무용 장르 비율이 달라질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있다.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패널: 예술감독제는 상의하달 식의 독임제가 될 우려가 있고, 없이 가자니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고 방향성을 잃은 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테다. 결국 극장의 철학이 걸린 문제인데, 여러 회의를 통해 계량계측되어 정해질 결론도 아니고 참 어렵다.

진행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작은 자리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행태가 아니다. 옳은 결론보다도 최선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패널: 예술감독제로 간다면 반드시 독립적인 권한을 주어야지 누군가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구조라면 소용없다. 예술위 안에 들어온 이상 본부장이나 부장 같은 직책들 사이 어느 선에 위치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려운 이야기다.

위원: 한국공연예술센터 시절에는 독립재단이었다. 예술감독이 예술위의 컨트롤을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지금은 예술위 소속이기에 예술감독도 예술위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패널: 솔직히 말하면, 예술가를 위한 정책만 가지고 있다면 예술감독제든 운영위원회든 아무 상관이 없다.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진정으로 접근해가는 소통 방식만 지켜준다면 정책 시스템은 뭐든 괜찮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예술을 관장하는 예술위가 나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연극계, 무용계, 뮤지컬계 모두가 거의 불쏘시개다. 아르코예술극장은 모두가 따라하는 표준이니 만큼 정책 결정에서의 포인트를 잘 지켜줘야 한다.

패널: 꼭 아르코예술극장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무용가들이 먼저 스스로를 개선하지 않는데 요구만 하는 것에도 반성과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진행자: 극장은 행정직원 뿐 아니라 시설 스태프, 하우스 등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운영위원회, 예술감독, 극장장 등 여러 체제 안에서 권한에 대한 혼선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패널: 되도록 1%라도 장점이 많은 쪽으로 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든 싸우는 과정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과정이라도 거쳐야 결과가 나아진다.

패널: 현장에서는 한국공연예술센터 때의 예술감독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기획공연이라 초대해놓고 그에 대한 코디네이팅을 하거나 간섭을 하려는 폐해가 생기기도 했다.

패널: 모든 직책은 사람의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예술감독제를 정말 좋아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운영위원회가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예술감독제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다. 잘 될 때는 칭찬 받겠지만 안될 때는 정말 힘든 산을 넘어야 할 거다.

위원: 지원을 받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기는 매한가지다. 우리가 과도기를 살면서 기본적인 신뢰가 없지 않았나 싶다. 운영 방향이나 조직체계 고민에 앞서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아르코예술극장은 예술가들의 공간이자 국가와 시민의 공간이기도 하다. 각양각색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무엇이든 당장 결론내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계속해서 현장과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가며 방향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안건3] 극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패널: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건 예술감독도 해결하기 힘들거다. 무대 셋업 하다말고 가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예술가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주52시간 문제로 인한 직원과 예술가와의 견해 차이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패널: 지원금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공연당 15~20백만원 내외 지원금을 받는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도 대관료, 스태프 인건비 등을 충당하느라 무용수들 인건비를 제대로 못주는 게 현실인데, 셋업기간이 1일 늘어나면서 그만큼 돈이 더 드니 상황이 악화되었다. 극장 측에서도 공연이 올라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고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는 운영일 테고, 예술가들에게도 적응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진행자: 사회적인 화두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공연단체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타 극장 같은 경우 인원충원이 어려우니 대관시간을 변경하기도 하고, 휴일근무 수당 한계가 있어 휴일공연을 막아놓기도 한다. 현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공연단체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지만, 향후 주52시간 문제로 발생될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필요하다.

패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심의발표와 대관 계약 날짜 조율이 안되어 대관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한 시기 절충이 꼭 필요하다.

진행자: 여러 기관과의 관계가 얽혀있어 시기 조절이 어려운 부분은 정말 딜레마다. 극장은 연간 일정 수립을 위해 전년도에 공모를 받지 않을 수 없고, 재단

들은 각 시에서 예산 승인이 이뤄져야 해서 늦어지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원금 심의와 발표도 빨리 진행되면 좋을 텐데 국가시스템의 문제니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패널: 모든 시기가 절충될 수 있도록 예산만 따로 코디네이팅 해주는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

위원: 관객개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순수단체들은 작품하기에도 여념이 없고, 나머지 분야는 컨트롤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 관객개발 만큼은 극장 측에서 정말 신경써줘야 할 부분이다.

진행자: 홍보마케팅은 극장에서 많아 다잡아 도움 주려 한다. 회원제도 더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

패널: 요즘 유투브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만큼 극장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대중과의 소통 창구가 게시판 밖에 없지 않은가. 공연정보나 관객문의에 대한 SNS 창구 역할로 유투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아르코예술극장이 먼저 파일럿으로 실행해보면 어떨까.

패널: 그 부분은 아직 조심스럽다. 최근 창작산실에서 몇 팀이 네이버 생중계를 시도했는데, 실시간 댓글 속에서 예술가들이 너무 상처받는 일들을 많이 겪었다. 익명성이라는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위원: 아카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아카데미 회원들이 바로 극장의 고정관객이 될 거다. 극장 관계자보다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아르코예술극장의 위상이 더 크다는 걸 인지하면 좋겠다.

패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0대 청소년 관객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도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10~20년 뒤에는 그들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테니 관객개발에 있어 집중해야할 포인트다.

패널: 3월에 있을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는 현장의 예술가들과 축제 관계자들도 함께 모이면 좋겠다. 막상 서로 싸우게 될지라도 우리끼리 직접 얘기하고 소통하다보면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